

FISU, 5월1~5일 광주 실시

〈국제대학교포츠연맹〉

市, 시민 유치 열기·국가 차원 지원 등 '감동 실사' 준비



2013 하계U대회 광주에서

2013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광주 현지 실사 일정인 오는 5월1일부터 닷새간으로 확정돼 남은 40여일동안 시민들의 유치 열기를 더욱 응집시키는 것이 최대 과제로 떠올랐다.

광주와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스페인 비고(Vigo)와 러시아 카잔(Kazan)에 대한 실사 일정도 구체화되면서 개최지 결정의 최종 판문을 통과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100만명을 돌

파한 U대회 유치 서명 참가자 등 시민들의 높은 열기를 바탕으로 이달 말까지 세부 실사 준비계획을 수립, '감동의 실사'를 연출한다는 전략이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제대학교포츠연맹(FISU) 사무국은 최근 대한올림픽위원회(KOC)를 통해 5월1일부터 5일까지 4박5일간 광주 현지 실사를 실시한다고 통보했다.

실사단은 스웨덴 집행위원인 스테판 베그를 단장으로 스타브로스 두비스(그리스), 케말 타머(터키), 말롬베트 라레트(남아공), 히사토 이가라시

(일본) 등 6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광주 방문 기간동안 도시 환경과 체육시설 등 U대회 개최를 위한 제반 여건과 능력을 점검한다.

광주에 대한 현지 실사는 2013년 U대회 유치를 신청한 3개 도시 중 가장 빠른 것으로 스페인 비고는 오는 5월8일부터, 러시아 카잔은 5월15일부터 나흘간씩 실사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실사 일정이 확정됨에 따라 광주시는 이달 말까지 구체적인 실사 준비계획을 수립해 실사단 맞이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광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U대회 유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해 유치 활동에 가속도가 붙게 된 만큼 실사단 환영 행사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대대적인 시민환영 행사로 뜨거운 유치 열망을 전하고 첨단산업과 문화가 어우러진 이색 이벤트로 '문화·예술·교육도시' 광주의 면모를 집중 부각시켜 실사단에게 감동을 전달한다는 전략이다.

한편 2013 하계U대회 유치는 광주와 러시아 연방 타타르스탄공화국 수도인 카잔, 스페인 비고가 치열한 3과전을 벌이고 있으며, 개최지는 오는 5월31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FISU 총회에서 집행위원들의 투표로 최종 결정된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시민 재활용 나눔장터 지난 22일 광주지하철 상무역 광장에서 열린 '광주시민 재활용 나눔장터'에서 시민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 자원 재활용 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이 행사는 매월 셋째 주 토요일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시 공무원 채용

세무직 318대1

오는 5월24일 치러지는 광주시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응시원서 접수 마감결과 세무직 318대 1을 최고로 평균 38대 1의 높은 경쟁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 올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원서를 접수한 결과 262명 모집에 모두 9천932명이 원서를 제출해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광주시의 경우 202명 모집에 7천953명(39대 1), 교육청(교육행정 9급)은 60명 모집에 1천979명(33대 1)이 각각 접수했다.

직급별로는 9급 세무직의 경우 2명 모집에 636명이 접수해 318대 1의 경쟁률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으며, 행정 7급은 6명 모집에 662명이 접수해 110대 1로 집계됐다.

광주시는 이들 원서접수자를 대상으로 오는 5월24일 필기시험을 실시해 6월16일 합격자를 발표하고, 7월2~4일 면접시험을 거쳐 7월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골프 권유할만한 것은 아니다"

청와대 '자제령' 입장 정리

청와대의 골프 지침을 놓고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골프를 멀리하자'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최근 한 회의에서 '골프를 금지한다'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는 후문이다. 공식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아니나 그렇다고 딱히 권유할

만한 것도 아니라는 얘기가.

물론 무계 중심은 후자에 가 있는 듯하다. '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라는 것은 '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미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류우의 대통령실장이 "지금 이 시점에서 골프를 치는 수석이나 비서관은 없겠지만..."이라고 언급한 것과 맥이 통하는 결론이다.

연남뉴스

대학농업벤처·창업아이템 지원

전남도, 업체당 1억씩

전남도가 자유무역협정(FTA)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농업 분야 대학교수·학생 등을 대상으로 대학농업벤처회사와 창업아이템 연구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

전남도는 23일 "대학농업벤처회사에 대해 1억원의 도비를, 창업아이템 연구개발 사업은 과제당 1천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24일부터 광주·전남 지역 농식품 관련 대학교수와 학생을 대상으로 대학별 순회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인 사업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대학농업벤처회사 지원 대상은 가공과 식품산업 등 기술성, 실용성이 높은 농업분야 아이템으로, 교수와 학생 3~10명으로 팀을 구성해 전남도에 신청하면 된다.

창업아이템연구사업은 교수와 학생 등이 연구팀을 구성해 기능성 식품, 친환경농자재 개발 등 가공·유통분야의 다양한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창업아이템 연구기간은 6개월~1년이며 연구비용은 과제당 1천만원, 상품화가 가능한 아이템은 대학농업벤처회사와 연계해 창업을 지원할 방침이다.

DJ 내달 15일 訪美

김대중 전 대통령은 내달 15일부터 25일까지 부인 이희호 여사와 함께 미국 포틀랜드와 보스턴을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포틀랜드대학과 포틀랜드 시장, 전미국제재철폐의회(WAC), 하버드대 총장, 터프스대 플래처스쿨의 초청으로 이뤄진 것으로, 김 전 대통령은 작년 9월에 이어 7개월만에 다시 미국 방문길에 나선다.

김 전 대통령은 방미 기간 5차례의



강연과 연설을 통해 6차회담의 성공과 북핵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 및 안정을 위해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전 대통령은 내달 17일 포틀랜드 대학이 마련한 '노벨평화 강연'에 참석하고 18일에는 지역 경제인 오찬연설 및 WAC 주관 강연에 나설 계획이다.

연남뉴스

전남 '해양생물 기능성 물질' 만든다

도, 12억 투입 김·미역 등 고부가가치 산업 육성

전국 해조류의 대부분을 생산하고 있는 전남도가 해양생물자원을 고부가가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해양생물 기능성 물질 개발 사업'에 12억원을 투입한다.

전남도는 23일 "전국 총생산량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풍부한 해양생물을 최대한 산업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도비 5억원 등 지방비 12억원을 투입해 해양생물 기능성물질 개발 및 해양바이오 소재의 사업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전남 청정해역에서 생산되는 김·미역 등 해조류가 전국 수산물시

장의 전국적인 지배력을 확보하고 있음에도 그동안 도내 724개의 수산물 가공업체 대부분이 냉동·냉장 등 1차 가공의 단순생산에 그치고 있어,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해양생물 R&D 사업의 필요성이 요구됐다.

해양생물 기능성 물질 개발 사업은 해조류와 어패류를 비롯한 다양한 해양생물에 함유된 기능성 물질을 찾아 내 의약품이나 건강식품 등으로 사업화함으로써 수산물의 고부가가치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생물산업진흥재단(해양바이오창업지원센터)이 주관, 전남

도 내에 있거나 도내 이전이 확정된 해양수산가공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4월 11일까지 공개모집 및 실사를 거쳐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 분야별로 '해양생물 기능성물질 개발'의 경우 미역이나 다시마에서 추출한 알긴산 및 푸코이단, 해양미생물로부터 항생제 개발 등을 하게 된다.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면 다른 시·도와 비교해 우위에 있는 해양생물자원을 첨단기술과 접목해 신제품 핵심기술 개발과 상품화 촉진 등으로 고부가가치를 창출, 산업 경쟁력 강화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빛의만평

- 김중두



짧은 시간에 많은敵이 생겼다

사 원 모 집

인사관리위원회

구분	직책명	직무요건	자격요건
임원급	회장	-	전남대학교 총장
임원급	부회장	학부, 대학원장	전남대학교 학부, 대학원장
임원급	총무	대학, 대학원장	전남대학교 대학, 대학원장
임원급	학부장	대학, 대학원장	전남대학교 학부, 대학원장
임원급	대학원장	대학, 대학원장	전남대학교 대학원장

심무중공법, 심무프로필리, 인사관리 위원회

2008년 제2회 후광 김대중학술상 수상 후보자 공모

전남대학교